

법제소식 NEWS

법제처, 생성형 AI 기반 대국민 법령검색 서비스 전환 추진

일상적인 질문만으로 법령, 판례, 해석례 등
법령정보를 종합 제공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대한민국 대표 법령정보 서비스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여 국민의 법령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AI 법령검색으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 생성형 AI 법령검색 서비스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 개최(6.26.)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하루 평균 약 90만 명이 방문하며, 750만 건 이상의 방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에 규정된 용어로 검색을 해야만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기에 2024년 12월부터 문장으로 질의해도 답변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나, 질문자의 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법령 AI 모델 도입을 통해 질문의 맥락과 의도를 분석하여, 국민이 원하는 법령과 관련 판례·해석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생성형 AI 법령검색 서비스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

이번 사업에서는 법령 검색에 최적화된 법령 AI 모델을 개발하고, 법령간 관계, 관련 판례 및 해석례를 구조화한 AI 특화 데이터 체계를 마련하여 매일 업데이트되는 법령정보의 검색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현행의 법령 데이터에 근거하여 답변을 생성하는 검색 증강 생성(RAG) 체계 마련을 통해 AI가 허위 정보나 거짓 답변을 지어내는 환각 현상을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법령검색과 무관하거나 악의적인 질문을 차단하고 부적절한 답변 생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AI 안전장치(가드레일)를 구축하여 신뢰할 수 있는 법령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생성형 AI 법령검색 서비스 화면 예시



법제처 송상훈 법제정보지원국장은 “국민 누구나 복잡한 법령정보를 간단한 질문만으로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 기반의 혁신 서비스를 완성하겠다”라면서 “인공지능이 산업과 일상의 중심이 되는 AI 시대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AI 기반 서비스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법제처 생성형 AI 법령검색 서비스는 2027년 7월에 개통 예정이며 이후 법령 AI 모델 업그레이드 및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할 계획이다.